

‘타인능해’ 정신 잇는다...구례 희망나눔가게 운영 재개

〈他人能解〉

주민 기부로 마련된 식품·생활용품, 취약계층이 직접 선택 매년 2~11월 6년째 나눔...쌀·라면·식용유 등 실질적 도움

조선시대 뒤주를 열어 이웃을 살리던 ‘타인능해(他人能解)’의 나눔 정신이 올해에도 지역 복지사업으로 다시 추진된다. 6년째 추진되는 나눔의 장은 매주 한 번, 정해진 점수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으로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돕게 된다.

구례군과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2월부터 ‘신(新) 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기부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월 1회 최대 10점 내로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도록 한 복지사업으로, 2021년 시작 이후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운영 종료 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물품 수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다시 문을 열었다.

가구당 이용 횟수는 월 1회로 제한되지만 쌀·라면·식용유·세제·화장지 등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업의 뿌리는 구례 지역 고령인 운조루에 전해 내려오는 ‘타인능해’ 정신이다.

운조루(국가민속문화재 제8호)는 류이주 선생이 1776년 조선시대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일대에 세운 99칸 규모의 전통 고택이다. 이곳의 나무 살독에는 ‘타인능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와서 쌀독의 뚜껑을 열고 쌀을 퍼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어려운 이웃 누구나 이

름을 밝히지 않고도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나눔의 철학은 오늘날 취약계층이 필요한 생활품을 직접 선택해 가져가는 ‘구례 희망나눔가게’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으로 마련되며 운영 예산은 2023년 이후 4000여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희망나눔가게 이용 인원은 2021년 1587명에서 2022년 2605명, 2023년 3894명, 2024년 4250명, 2025년 4631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부 건수는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신 타인능해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2021년 50건, 2022년 24건, 2023년 45건, 2024년 18건, 2025년 15건으로 줄었다.

이 같은 ‘수요 증가·기부 감소’ 현상은 지역 푸드뱅크에서도 나타난다. 광주 지역 푸드뱅크 이용자 수는 2021년 8628명에서 2023년 9482명까지 늘었다가 2025년 7658명으로 감소했으며, 기부 건수는 2024년 3만755건 이후 2025년 2만8416건으로 줄었다.

전남 지역 이용자 수는 2021년 9만9067명에서 2025년 13만1185명으로 증가한 반면 기부 건수는 2024년 2만4973건에서 2025년 2만418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부 기반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



구례군과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2월부터 ‘신(新) 타인능해 구례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재개했다. 희망나눔가게를 찾는 수급 대상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고르고 있다. (구례군 제공)

해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는 단순한 복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성과 보고, 주민 참

여형 평가체계 도입, 구체적 수치와 변화 사례를 주민에게 알리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에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기반 연대가 작동하지 않으면 복지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관계자는 “기부자에게 사업 필요성과 현황을 설명해 희망나눔가게 지정 기부를 요청하고 현물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부자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전남, 아침 영하권·큰 일교차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은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20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고 18일 예보했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6~13도로 예상된다. 2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4~2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주말인 21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 14~18도를 보이겠고, 22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5~10도, 낮 최고기온 9~16도로 분포하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으로 인상...4월 지급

올해부터 전남지역 ‘농어민 공익수당’이 10만원 인상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4월 중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경영안정을 위해 전남도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올해 1561억원(도비 624억원, 시·군비 937억원)을 투입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월 13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해온 지역민이다. 지급 대상 경영주는 22만 2967명이다.

전남도는 자격 요건 검증절차를 거쳐 4월 경영체당 7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3년 5개월만에 65만명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출범(2022년 9월)한 지 3년 5개월 만에 65만명을 넘어섰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전남의 지역에 살면서 전남을 응원하고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서포터즈에게는 지역 주요 관광지, 숙박, 레저, 식당, 카페 등 94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서포터즈 100만명, 할인가맹점 3000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 홍보 활동과 함께 22개 시·군과 함께 할인가맹점 추가 모집에 나서 연초 590여 개 수준이던 가맹점을 943개까지 확대했다.

전남도는 올해 서포터즈 70만 명, 할인가맹점 1500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문과 소비, 기부로 연결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엉뚱한 새’ 조사했다?

국토부 산하 사조위, 가장오리 아닌 흰뺨검둥오리 조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조류 충돌 사고와 무관한 엉뚱한 새를 놓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사조위가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무안공항 조류활동 조사분석 및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뒷새 ‘흰뺨검둥오리’에 대한 이동 패턴 등 조사 결과가 담겼다.

문제는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새는 흰뺨검둥오리가 아닌 겨울 철새 ‘가장오리’라는 점이다. 사고기 엔진에서는 가장오리 혈흔과 깃털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가장오리 대신 흰뺨검둥오리 10마리를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달고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시작한 시점도 가장오리가 시베리아로 떠나기 시작한 이듬해 3월 말부터 넉 달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오리와 흰뺨검둥오리는 생태적 특성이 다른 종이다. 흰뺨검둥오리는 주행성이며 크기가 60cm, 무게 1kg 정도인 반면, 가장오리는 야행성에 크기 40cm, 무게 0.5kg 안팎에 작고 빠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보고서를 포함해 현재 1만여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수단은 엉뚱한 조사를 한 보고서가 원인 규명에 혼선을 준 것은 아닌지, 조사 태만은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꾸려져 1년여 동안 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1월 국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국무총리 산하 사조위로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